

위풍당당과 ESG



서 선 미 역

기후에세이

그들의 위풍당당은 영원하지 않았다. 1970년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은 외부의 경쟁자가 아닌, 미국 기업 '빅3'(GM, 크라이슬러, 포드)와 미국 정부였다. 1973년 오일쇼크로 기름값이 폭등하자 미국 의회는 기업 평균 연비제(CAFE)를 도입했다. 각 제조사가 판매하는 차량 전체의 평균 연비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맞추도록 강제하고, 미달할 경우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였다. 수십 년간 막대한 이익에 익숙했던 빅3는 변화를 거부했다. 기업의 가장 강력한 항변은 '일자리가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미국 정부는 빅3의 손을 들어주며 연비 기준을 크게 낮춰주었다.

숫자의 후퇴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패권을 바꾸어 놓았다. 미국 기업들은 기술 개발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기름값이 쌀 때만 돈을 버는 허약한 경영 체질은 고착화되었다. 이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 기업은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였다. 그들은 규제를 기술 혁신으로 넘어설 문턱으로 보았다. 오일쇼크 이후 자국의 엄격한 오염 규제에 정면으로 맞서며 엔진과 생산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했

다. 나이가 1997년 세계 최초의 양산형 하이브리드 차인 '프리우스'를 선보였다. 우리 현대자동차도 글로벌 기후 규제라는 시련에 정면 대응하며 세계 최초 양산형 수소전기차를 내놓는 저력을 보여준 바 있다.

당장의 보호막은 달콤했을 것이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모두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다. 고유가와 기후변화라는 파도 속에서 시장의 패권은 달라졌다. 최근 우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을 보며, 미국 빅3의 쇠락이 오버랩되는 것은 과한 우려일까.

역사는 '투명성'과 '신뢰'를 확장해 온 과정이다. 민주주의 사회를 떠받치는 핵심 축인 시장과 기업, 즉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투명성과 신뢰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생존을 결정짓는 절대적 조건이다. 막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도 그것은 가장 명확한 '투자의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우리의 제도적 시계는 멈춰 있는 꼴이다. 로드맵에서 가장 아쉬운 지점은 공급망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루는 '스코프 3(Scope 3)' 공시를 2031년까지 유예한 대목이다. 스코프 3는 단순히 한 기업의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스코프 1)나 사용하는 전력(스코프 2)을 넘어, 원자재 조달부터 제품의 수송,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가장 정밀하게 추적하는 지표다.

제조업 기반의 수출 국가인 한국 기업들에 스코프 3는 기후 리스크의 핵심이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 실사법,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요구 등 전 세계 시장은 이미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량을 검증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스코프 3 공시를 여전히 기업을 옥죄는 '규제'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기술과 경영 시스템의 수준을 격상시킬 수 있는 '선제적 정책'이다. 규제가 아닌 성장의 문턱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합리적 시기를 설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을 끌어들이고 산업을 혁신하는 'ESG의 힘'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이제 글로벌 자본시장의 파도에 국회가 올라타야 할 시간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스코프 3 공시를 현실화하여 우리 기업의 고령을 막아야 한다.

ESG는 잠시 불리다 사라질 유행가가 아니다. 멈춤이 없는 기후 위기 속에서 글로벌 자본시장이 채택한 새로운 투명성 표준이다. 우리 자본주의에 ESG의 가치를 제대로 포개어, 그 정직하고 투명한 힘을 바탕으로 한국형 ESG 자본주의'를 세워야 할 때다. 우리 기업의 '위풍당당'은 바로 그곳에서 출발할 것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정책전문위원

플랫폼 시대, '블록버스터'의 한 방



기지 수첩

이 청 하
(유통&라이프부)

최근 SBS에서 방영한 드라마 '김부장'이 시청률 23.0%라는 기록을 세웠다. 참 오랜만에 느껴본 '본방사수'였다. 주말 밤 10시만 되면 TV 앞으로 모여들어 손에 땀을 쥐고 몰입하는 그 긴장감. 다음 날 출근 길이나 점심 시간, 만나는 사람마다 '어제 김부장 봤냐'는 시끌벅적한 대화. 원할 때 정주행할 수 있는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대라지만 정해진 시간에 다 함께 뚜껑을 열어보는 카타르시스는 여전히 유효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취재 현장에서 매일 접하는 고민이 겹쳤다. 바로 플랫폼 기술과 신약개발의 관계다.

최신 제약·바이오 업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플랫폼 기술이다. 하나의 기반 기술을 확립하면 여러 표적에 폭넓게 응용할 수 있고 파이프라인도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다. 연구 개발 실패 위험을 줄이고 효율성은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를 갖췄다. 실시간 방송을 대신해 흥행하고 있는 OTT 역시 수많은 콘텐츠를 담아낸 안정적인 창구다.

하지만 산업의 본질과 시장의 판도를 단순히 바꾸는 건 결국 신약개발 임상 성공이다. 단일 신약개발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면서도 위험하다. 그러나 임상 3상을 끝낸 성공하는 순간, 환자 삶을 바꾸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강력한 한 방이 된다.

OTT 범람 속에서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우리가 왜 진짜 신약개발이 주는 쾌감을 포기할 수 없는지 보여줬다. 또 시청률로 확인된 막판 화력의 열기는 후속 드라마와 동시간대

경쟁 드라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편의 메가 히트 작품이 집집마다 TV를 켜게 하자 주말 안방 극장에 다시 새로운 활력이 들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겼다.

제약·바이오 산업도 다르지 않다. 플랫폼 기술이 미래 첨단 의약품 개발에 적극 활용되지만 산업을 궁극적으로 지탱하는 힘은 하나의 블록버스터 약물 가치에서 나온다. 결정적인 신약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다시 후속 R&D 투자를 계속하는 선순환 구축은 제약 산업 본연의 소망이기도 하다.

플랫폼 기술이라는 거대 그릇에 신약이라는 핵심 콘텐츠를 담아내고 그 가치 시슬이 전체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지속가능성. 무더운 여름밤 우리를 매료시켰던 김부장이 남긴 후일담이 제약·바이오 산업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처럼 들리는 이유다.

/mlee236@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8일 (음 6월 15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유익한 하루가 됩니다. 60년생 새로운 발상이 많이 나오는 하루입니다. 72년생 기운이 없고 무언가를 해도 의욕이 없습니다. 84년생 반가운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

49년생 업무 등에서 상당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61년생 자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도록 하세요. 73년생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85년생 주변 사람을 관찰하도록 하세요.



로랑씨

50년생 첫만남의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62년생 사람들로부터 신뢰 받습니다. 74년생 업무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86년생 아무도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날입니다.



도끼

51년생 휴식을 취하도록 하세요. 63년생 머리회전이 잘 되는 날입니다. 75년생 도전정신이 왕성해 지는 하루입니다. 87년생 새로운 프로젝트나 신제품개발을 하면 좋습니다.



조

52년생 최근에 만난 아성을 조심하세요. 64년생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습니다. 76년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화를 면합니다. 88년생 사방에 고동과 어려움이 펼쳐졌습니다.



뱀

53년생 끈기있게 기다려보세요. 65년생 노력을 해 보아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77년생 큰 성과를 올리기 힘든 하루입니다. 89년생 앞으로 나아갈수록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말

54년생 여행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66년생 대인관계에 신경을 쓰세요. 78년생 회사에서 부하직원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90년생 상대방이 소홀이 대접할 수 있습니다.



양

55년생 타인이 보는 모습도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하세요. 67년생 자기 자신을 꾸미는 일이 중요합니다. 79년생 사기를 조심하세요. 91년생 환상속에 살고 있는자들의 말은 신뢰감 이 없습니다.



원숭이

56년생 나름대로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68년생 자신을 쉽게 드러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80년생 매사에 조심하게 행동하세요. 92년생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언을 할 때입니다.



닭

57년생 쉽게 말했다가 쉽게 후회하게 됩니다. 69년생 누군가를 추천해주는 자리가 생깁니다. 81년생 인생의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93년생 뒤에서 밀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개

58년생 싸움에 휘말리지 마세요. 70년생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82년생 사랑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할 운입니다. 94년생 연애운이 굉장히 좋은 하루입니다.



돼지

59년생 화해를 하고 일을 처리하도록 하세요. 71년생 적극적으로 밀고 나아가세요. 83년생 안으로 손해와 좌절이 숨어있는 시기입니다. 95년생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김상회의四季

금적금왕, 핵심을 찾아야



중국 병법 36계 가운데 금적금왕(擒賊擒王)이라는 계책이 있다. 뜻을 풀 어보면 '도적을 잡으려면 우두머리를 먼저 잡으라'라는 뜻이다. 전쟁터에서는 수많은 병사가 싸우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을 움직이는 것은 지휘관이다. 병사가 많아도 지휘체계가 무너지면 패한다. 병법에서는 적의 말단 세력을 상대하는 것보다 핵심 지휘자를 제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이는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들을 명쾌하게 풀어내는 지혜로 연결된다. 일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때, 사람들은 눈앞의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닌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피로만 쌓이는 경우가 많다. '지휘관'은 가만히 두고 '전쟁'이 병사들'과의 싸움만 신경 쓰기 때문이다.

지혜는 가장 먼저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 핵심을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 건강이 나빠졌을 때, 많은 사람은 증상만 해결하려고 한다. 과곤하면 영양제를 먹고,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찾고, 체력이 떨어지면 보약을 먹는다. 근본 원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라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진짜 해결책은 생활 습관을 바꾸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두머리를 잡는 일이다. 핵심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금적금왕은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을 알려 준다.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찾아 집중해야 한다.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는 고민의 배후에는 대개 한두 개의 핵심 원인이 숨어 있다. 핵심을 발견하는 순간 복잡했던 문제들은 의외로 풀리기 시작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6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6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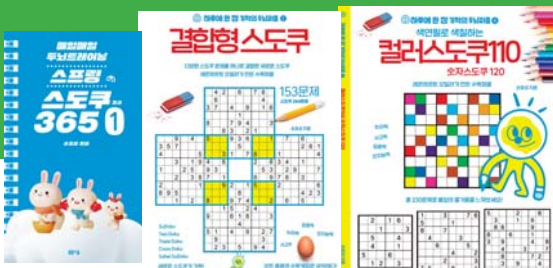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작출판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3	8					1
4	8			6		9		
			3					
		4			6			
1		9				7		2
			5			1		
					9			
		1		5			2	6
7				8	5			9



			4		9			2
			8	3				
	2	6		1				
4	5			1	9			
							9	1
				5		3		
					2		1	8
						4	7	
	8			6		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8	9	8	2	1	9	7	2
9	2	8	7	9	2	1	8	6
2	1	7	6	8	9	9	2	8
7	6	1	2	2	9	8	9	8
2	9	2	8	8	7	6	9	1
9	8	8	9	1	6	7	2	2
8	7	9	2	6	8	2	1	9
8	9	6	1	9	2	2	8	7
1	2	2	9	7	8	8	6	9

2	7	9	1	9	6	8	8	2
6	9	2	7	8	8	9	1	2
8	8	1	9	2	2	6	7	9
9	2	2	8	7	9	1	6	8
1	6	8	9	8	2	2	9	7
8	9	7	6	2	1	2	9	8
2	8	6	8	1	7	9	2	9
7	1	9	2	9	8	8	2	6
9	2	8	2	6	9	7	8	1